

수자원공사, 코로나19로 어려움 겪는 협력업체 지원 모색

충남지역 상수도 현대화사업 참여업체 격려...방역물품 전달



1

1 박재현 사장(오른쪽)이 온라인 학습용 컴퓨터를 기증한 뒤 허태정 대전시장(왼쪽)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 박재현 사장이 협력업체 직원에게 마스크를 전달하고 있다.



2

공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협력업체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계약 기간을 연장하고 지체상금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사업비 선지급률을 기존 70%에서 80%로 높이고 지급 기간도 단축한다. 박 사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에 처한 협력업체들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수자원공사, 대전시에 온라인 수업용 컴퓨터 750대 기증

한국수자원공사는 4월 13일 초·중·고교 학생 온라인 수업을 위해 컴퓨터 750대를 대전시에 기증했다. 컴퓨터는 수공 직원들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노트북 400대와 데스크톱 컴퓨터 350대다. 공사는 온라인 수업을 위해 운영체제 등 필수 소프트웨어를 새로 설치하고 성능 검사도 마무리했다고 설명했다.

대전시는 컴퓨터를 대전지역 143개 지역아동센터로 전달해 돌봄 대상 초·중·고교 학생 4천여명이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박재현 사장은 “우리 사회의 주역이 될 미래세대의 꿈과 희망을 위해 국민과 함께 하는 공기업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4월 7일 충남 홍성 충남지역협력단을 방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협력업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수자원공사는 현재 충남도내 11개 시군에서 상수도 누수율 등을 개선하는 현대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박 사장은 이날 지방 상수도 현대화 사업에 참여 중인 중소기업 건설업체들이 겪는 현장 인력 운영, 공사 자재확보 등의 어려움을 듣고 제도적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함께 희망을 꽃피웁니다

대한민국은 코로나19를 이겨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전선에서 땀 흘리는 의료진과 자원봉사자, 이웃에게 마스크를 기꺼이 양보하는 우리 국민.

대한민국의 힘이고 자부심입니다.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희망을 꽃 피웁니다.